

## 중국 음성소득의 주요 요인과 해결 방안

### 1. 개요

- 중국개혁기금회국민경제연구소(中国改革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) 왕샤오루(王小鲁) 부소장은 지난 5월 28일 《재경(财经)》에 《국민소득분배현황과 음성소득(国民收入分配状况与灰色收入)》 연구 보고의 요약본을 발표함.<sup>1)</sup>
  - 왕샤오루는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의 소득양극화 문제는 시장화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제도적 결함에서 야기된 부패와 “음성소득(灰色收入)”에 기인한다고 주장
  - 동 보고서에 따르면 “음성소득(灰色收入)”이란 불법소득, 규정 및 규율 위반소득,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득,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2006년 중국 GDP의 24%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추정됨.

### 2. 음성소득의 규모와 요인

#### 가. 음성소득 규모 추정

- 보고서는 2005년 전국 도시의 음성소득 규모가 4조 4,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추정하였으며 이는

1) 연구보고 전문은 7월 《비교(比较)》지에 실릴 예정이며 요약본은 《음성소득해부(剖析灰色收入)》라는 제목으로 실림.

중국 GDP의 24%에 해당하는 수준임.

- 중국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고서의 조사에 따른 상위 10%의 개인평균 가처분소득은 기존 통계수치의 약 3배인 97,000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하위 10% 소득의 31배
  -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위 10%와 하위 10%의 소득 격차는 약 55배로 추정(기존 공식통계 상으로는 약 21배)
  - 왕샤오루는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주택(商品房), 자가용 소유현황과 계좌액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고서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, 오히려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밝힘.
- 통계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“음성소득”으로 인해 공식 통계치의 수치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됨.
- 보고서의 연구 결과)와 기존의 공식 통계 수치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공식통계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남.
  - 이를 통해 음성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짐을 알 수 있음.

## 나. 음성소득의 주요 요인

- 현재 중국의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은 제도적 결함에서 발생된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음성소득임.
- 왕샤오루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 양극화가 성급한 시장화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, 실제로는 부정부패가 소득 양극화 심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

---

2) 조사팀은 신뢰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얻기 위해 조사원들의 친척, 친구 (약 2천여명)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.

- 보고서에 따르면 총 4조 4,000억 위안의 음성소득 가운데 제도결함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규모는 약 3조 위안으로 음성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
<표. 1> 음성소득의 주요 요인과 추정 규모

항목	내용	추정 규모
재정자금	· 다단계 업무구조에서 대량의 자금유실 발생	5,600억 위안
금융부패	· 대출시 기업이 금융기관에 추가비용 지불	1조 위안
행정부패	· 행정 허가, 비준 과정에서 뇌물수수	5,000억 위안
토지수익	· 비합법적인 매매로 인한 차액손실	5,400억 위안
	· 개발보상비 및 사회발전기금 횡령	2,080억 위안
독점산업 부당이익	· 독점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는 전체의 8%, 수입은 전체의 55%	9,200억 위안
기 타	· 통계에 나타나지 않음	6,720억 위안
총 액		4조 4,000억 위안

- 불투명한 다단계 행정 업무구조에서 대규모의 재정자금이 남용되거나 유실되고 있으며, 2005년 기준 그 규모는 약 5,600억 위안에 달함.

- 2006년 기준 4조 5,000억 위안의 국유고정자산투자액은 다단계의 하청구조에서 수많은 부정행위로 대부분 유실되어, 결국 최종 시공업체는 정부 지출금액의 1/3도 받지 못한 실정임.

- 금융부패가 만연되어 대출시 정상적인 이자 이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미 관례화 되어 있음.

-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과 “우호적인 관계”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출금의 9%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

- 2006년 기준 전국 금융기관 총 대출액 22조 위안 가운데 약 1조 위안이 금융기관의 음성소득으로 추정됨.

- 행정 허가, 비준 과정 중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

- 세계은행은 중국 기업의 유흥 및 여행 지출을 통해 정부 관료의 뇌물 수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
- 일반 기업의 유흥 및 여행 지출의 규모는 총 수입의 약 0.5% 정도이지만, 실제로 중국 기업의 해당 항목 지출 규모는 0.7~2.3%에 달하며 이 차액이 바로 정부 관료의 뇌물 수수 규모라고 할 수 있음.
- 2006년 기준 중국 전체 기업의 유흥 및 여행 지출 55조 가운데 약 5,000억 위안이 정부 관료에 대한 뇌물로 추정됨.
- 왕샤오루는 이는 부정부패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현금, 신용카드, 주식 등의 방식을 이용한 뇌물수수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

#### □ 토지수익 유실

- 2005년 유기양도된 국유토지 16만 3,000 헥타르 중 정부가 권장하는 공개경매방식을 통한 것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음.
- 공개경매방식을 통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수익차이는 4~5배로 2005년 공개경매방식을 통하지 않은 토지는 10만 1,000 헥타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음성소득은 약 5,400억 위안으로 추정됨.
- 이밖에 지방정부는 토지개발과정 중 발생한 보상 및 사회발전 관련 금액(매 헥타르 당 약 10만 위안으로 환산 시 약 2,080억 위안)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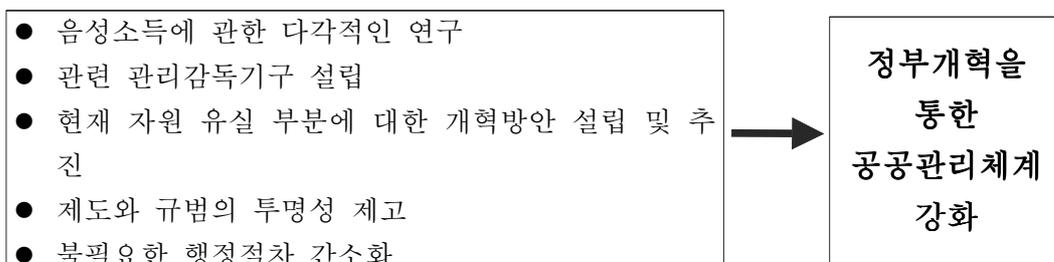
#### □ 독점기업의 부당 이익

- 2005년 기준 전력, 전신, 석유, 금융, 보험, 담배 등 독점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833만 명으로 총 근로자 수의 8%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그 소득은 총 근로자 수입의 55%에 상당

### 3. 음성소득 문제의 해결 방안

- 음성소득은 국민소득분배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.
  - 음성소득은 소득 재분배에 왜곡을 야기하여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,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‘화합사회’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음.
  - 또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음성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을 통한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패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.
  -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음성소득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, 정부 제도 개혁을 전담할 특별 관리감독 기구 설립이 절실함.
  - 또한 재정, 금융, 행정관리, 토지, 국유자원관리제도 등 자원유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, 국내외 경험을 통한 개혁 방안 설립 및 추진이 요구됨.
  - 이와 아울러 제도와 규범의 투명성 제고,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
<그림 1> 음성소득 해결방안



## 4. 중국내 반응 및 시사점

- 학계를 비롯 대대수 여론은 왕샤오루의 연구 보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.
  - 청화대 사회학교수 쑤리핑(孙立平)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0조 위안의 사회재산(社会财富)중 1조 3,000억 위안의 소유주를 찾을 수 없으며, 실제로 도시 주민 소득 중 많은 부분이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왕샤오루의 주장을 지지
  - 중앙공산당학교연구실(中央党校研究室) 저우톈용(周天勇) 부주임은 중국의 잘못된 재정체계가 바로 음성소득의 온상이라고 비판
- 《재경(财经)》 루레이(陆磊) 수석연구원은 왕샤오루의 음성소득에 관한 연구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성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함.
  - 소득분배 불평등과 음성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짐으로써 중국 거시경제 정책 조절 및 소득분배체제 개혁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임.

### <참고 자료>

《财经》, “剖析灰色收入”, 2007.5.28

《财经》, “灰色收入的致命影响”, 2007.5.28

《经济观察报》, “一份研究报告的出台”, 2007.6.11

《21世纪经济报道》, “中国改革基金会报告：城镇居民灰色收入四万亿”, 2007.6.11

《中国经济报》, “4.8万亿元灰色收入之谜”, 2007.6.18